

2025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처음 요동(遼東)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띄약별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 리 너머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요동 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遼河)*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소리와 빛같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요하 : 청나라의 북쪽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봉천(지금의 선양)과 금주 사이를 흐르는 큰 강.

(나)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어 그리 어렵겠는가?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에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뵈어요.”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없어* 보이잖아.”

“채신? 원, 잘못된 거 사과하는 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야?”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힐책하였다 :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랐다.

*채신없어 :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여 위엄이나 신망이 없어.

(다) [앞부분의 줄거리] 한때 촉망받는 뮤지컬 감독이었던 일한은 재기를 꿈꾸며 도전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목소리를 가진 영광을 만난다. 일한은 처음에는 영광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때문에 구박을 일삼고 함부로 대했지만, 영광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해져서 자신을 버린 아빠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한은 살이 다 터지도록 피나게 노력하는 영광과 함께 진심을 다해 꿈의 무대에 도전한다.

사회자 자, 다음 무대는요……. 화제의 주인공이죠? 까만 콩 김영광 군입니다!

조명이 들어오고 세손* 의상의 영광이 혼자 무대에 덩그러니 서 있다. 천천히 객석을 둘러보는 영광,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공연이 시작되지 않자 객석이 살짝 술렁인다. 사회자가 열른 시작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여전히 미동 없는 영광. 무대 뒤편에서 조바심 내고 있던 일한이 큰 소리로 영광을 부른다. 일한을 돌아보다 고개 돌리는 영광. 여전히 홀로 서 있다. 일한이 무대로 걸어 나가서 영광 앞에 한쪽 무릎을 굽혀 앉는다.

일한 왜? 전부 네 노래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영광 전 얼굴도 까망고…… 그런데 정조 대왕님은 얼굴도 하얗고…… 난 아빠도 없고…… 아빠는 날 창피해하는데…… (설움이 복받쳐 더듬거리며) 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한 영광아, 아니야. 그 사람들…… 너한테 화내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맞아.

영광 (계속 울먹이고)

일한 이거 영광의 노래야. 너 아니면 안 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영광 …….

일한 너, 지난번에 무대에서 날았던 날 기억하지?

영광 (고개 끄덕이고)

일한 응? 내가 보면 그때처럼 나는 거야. 알았지?

영광 (일어나는 일한을 붙잡는 영광)

일한 (다시 앉으며) 같이 하자, 그러면. 내가 시작하면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면 영광이 나는 거다, 알았지? 응?

무대 한 켄의 피아노 앞으로 가서 앉은 일한. 건반에 손을 올려 두며 영광과 눈을 맞춘다. 전주가 시작되면 피아노 선율을 타고 흐르는 아름다운 영광의 목소리. 목소리만으로도 어린 정조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진다. 노래를 따라 자연스레 영광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슬픔과 환희와 고통을 온몸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영광. 일한도

혼신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한다. 작지만 압도적인 영광의 무대에 객석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쏟아진다.

*세손 : 왕세자의 맏아들.

(라) 우리에게 학교는 바깥세상의 공포를 피하는 안식처였다. 하지만 물론 학교에서도 우리는 위협 아래 있었다. 처음 폭발된 학교는 마타에 있는 공립 여자 초등학교 샬와르 장가이었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더 많은 폭탄이, 거의 매일 터졌다. 밍고라에서도 폭발이 있었다. 내가 부엌에 있을 때 폭탄이 두 번 터졌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 집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 위에 있던 선풍기가 떨어졌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무서워서 재빨리 뛰어 들어갔다 뛰어나오곤 했다. 2008년 2월 마지막 날, 내가 부엌에 있을 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소리였다. 하지바바 고등학교 농구 코트에서 자살 폭탄이 터진 것이었다. 탈레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까지 폭탄을 터뜨렸다. 쉰다섯 명 이상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자비드 익발의 어린 아들을 비롯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많았다. 모니바 가족 중 열 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모두 죽거나 다쳤다.

“지금 무서우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밤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강해진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되찾게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실이었다. 우리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만큼 강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계곡에서 탈레반을 몰아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학교에서 아버지는 평화 행진을 조직했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격려했다. 어느 날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인 지오(Geo)에 갔다. 나는 아주 많은 채널을 보고 놀랐다. 나중에 생각했다. 언론은 인터뷰가 필요하다. 그들은 어린 소녀와 인터뷰하고자 하지만, 친구들은 두려워한다.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친구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겁먹지 않는 사람이며 항상 내 곁을 지켜 주신다. 아버지가 말했었다. “넌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은 네 권리.”라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마) 겨울인데다 밤길이었던 고로 쉬운 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전거에 타고 나를 뒷자리에 앉게 하셨다. 인적이 드문 신작로에 들어선 나는 조심스럽게 “아부지!” 하고 불렀다.

“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나이 대 사나이로서.”

“싸나아이? 어디 한번 해 보나라.”

“저 학교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배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애들도 너무 유치해서 사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연과 라디오를 스승 삼고 주경야독으로 제 수준에 맞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이 씨익씨익, 하고 페달만 밟으셨다.

“실은 제 정신 수준은 보통 사람의 서른 살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지 어언 두 달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대학도 갈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학비를 안 대 주셔도 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 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거의 표준말에 가까운 억양과 어휘로 말했다.

“고맙다, 내 걱정까지 해 주다니.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라. 시간을 줄 테니.”

그러고는 달빛 비치는 서산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는 신작로 아래 냇가

로 내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오줌을 누러 가시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전거 위에 앉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자전거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 내리다가는 자전거와 함께 신작로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 같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떨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앉았던 안장을 움켜쥐고 내가 하느님을 서너 번은 죽히 불렀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올라왔다.

“달밤에 신작로 위에서 자전거 타고 혼자 있으니까 세상이 다 니 아래로 보이더냐?”

그 물음에는 천재인 나도 대답할 말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아이가 내게 그렇게 말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다. 준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만 들뜬 아이를 마음으로 감복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세상의 틀에 우겨 넣으려는 한, 내 중년은 아버지의 중년에 비할 수 없이 유치하다.

(바)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오빠와 올케가 사망하자 ‘나’는 젓먹이로 고아가 된 조카 ‘훈이’를 맡아 키우게 된다. 자유를 찾아서라기보다 돈만 있으면 ‘훈이’에게 줄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나’는 남으로 피란을 간다. ‘나’는 ‘훈이’가 기술을 배워 적당한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훈이가 고등학교 이 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이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한 게 서운했다.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중략)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이 년 가까이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체비로 돈을 좀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제제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나는 그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이 강하게 부딪쳤으나 나는 단절감을 느꼈다.

“해외 취업은 당분간 보류하렴. 할머니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그건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취직 문젠데, 너무 고지식하게 정문만 뚫으려고 했던 것 같아. 방법을 좀 바꾸어서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흥, 돈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 아버지는 식구들이 저녁을 마친 후에 돌아온 아들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기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또 그 일이 어째서 잘하고 잘못하고로

구별돼야 하는지, 저는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의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갖고 있을 때,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에 편승해서, 일이 잘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일이 잘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씩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보라…….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간 날,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날이 생생한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모르는 길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마.” 이 길거리 위의 세 가지 금기를 저에게 알려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 금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안 가 본 나라는 어떨까? 그곳에 가면 어떤 편견을 깨고, 무엇에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죠. 아프리카로 가겠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예방 접종을 맞고, 모아 둔 돈을 털어서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탔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고 편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아니까요. 그런데 금기를 어기고 나니까 제가 길에 관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길은 어떤 지점에서 도착지로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모험이라는 점이었어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주인공 아카키는 하급 관리로 평생 서류를 정리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의 낡은 외투가 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외투가 필수품이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돈을 아껴 겨우 새 외투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 외투를 입은 첫날, 불행히도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다음 날 아카키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더욱 초라해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마디 하겠다며,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서장이 상부에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는 찾아내겠지만 만약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권했다. 할 수 없이 아카키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계는 엄격함이었다. “엄격, 엄격, 또 엄격.”

아랫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세 마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중략) 이때 아카키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 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그는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카키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 가며 완전히 새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 주도록 청원을 좀 해 주십사 찾아왔다고 말했다.

“귀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면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상관이나 윗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기나 해, 알기나 하난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카키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하여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만족했다.

(차) 산업화 이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 조직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체계인 관료제가 확산하였다. 관료제는 행정 기관, 회사 등을 비롯한 오늘날 사회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관료제 조직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므로 개인적인 감정 개입을 방지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관료제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하는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카) 유교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감화하는 정치, 즉 덕치(德治)로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이상 사회를 지향한다. 이때 통치자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덕을 함양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자의 덕치 사상에 따르면, 이상적인 정치는 법령과 형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도자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고 덕과 예로 이끌면 백성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명분에 부합하는 덕을 갖추고 자기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와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바)에 나타난 고모의 양육 방식을 제시문 (라)와 (마)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하고, 제시문 (사)의 성규가 부모와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제시문 (아)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토대로 제시문 (바)의 훈이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를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차)를 토대로 제시문 (자)의 아카키가 경찰서장 대신 고위층 인사를 찾아간 '이유'와 그 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카)를 바탕으로 고위층 인사가 아카키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를 서술하시오. [20점, 330-350자]